

2021년 대한축구협회 사업 추진 계획

■ 2021년 정책방향 : 정상적인 축구로 회복 (Return to Football)

1. 정상 축구로 회복

- 월드컵, 올림픽 등 주요 국제 대회 우수성적
- 코로나 안심 방역 대책 마련 및 각급 국내 대회/리그 재개

2. 신뢰받는 축구문화

- 코로나 극복을 위한 축구인 고충 해결
- 심판 인식 개선 및 신뢰 제고

3. 지속 가능 성장

- 한국축구 미래 인프라 확대 (디비전, 동호인 축구, 축구종합센터)
- 재정 건전성 확보

■ 2021년 주요 사업 분야별 세부 계획

1. 축구 대표팀 경쟁력 강화

- 국제대회 우수성적 및 미래 대비
 - (우수성적) 2022 카타르 월드컵 최종 예선, 도쿄올림픽 본선 등
 - (미래대비) 퓨처팀 본격 육성 등
- 코로나19 대비 선수단 안전 및 방역 강화 (체계적인 방역 대책 마련)

2. 대회 및 리그 활성화

- (제도개선) 각종 제도 선진화
 - 리그/대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 마련 : 유청소년 연령별 리그, 디비전 등
 - 등록 관련 규정 선진화
- (디비전 활성화) K3·K4리그 정착 및 확대
 - 승강제 실시 (승격지원금 논의)
 - K리그 1·2 B팀의 K4리그 참가 추진
 - 그 외 리그 홍보 극대화

- (저변확대) 생활축구 저변 확대
 - 동호인 랭킹제 도입 및 체계화
 - 준회원제도 적용 및 등록인구 확대 (2030년 30만명 목표)

3. 기술 발전

- KFA 골든패스 내실화
 - 플랫폼 및 AI 기반 영상 데이터 구축
 - 측정방법 등 현장 배포 (활성화 목적)
- 퓨처팀 육성을 통한 연령별 대표팀 강화
 - 전국대회 통한 우수 선수 및 지도자 선발
 - 퓨처팀 구성 및 각종 대회 참가 통한 잠재성 있는 선수들의 경기 경험 확대

4. 온라인 비대면 교육 확대

- KFA 아카데미 유튜브 채널 확대
 - 공익적이며 실용적인 콘텐츠 보급
 - 정보 제공 대상 확대 : 지도자 외 학부모/선수 대상 보급 확대
 - 온라인 소통 창구
 - 교육 콘텐츠 확대 제작 (콘텐츠 범위 및 제작물량 등)

5. 심판 육성

- K리그 심판 일원화 정착
 - 사전 배정, 대외 공개, 소통 확대를 통한 심판 신뢰도 증대
 - 심판 역량 강화 지원
- 온라인 교육 플랫폼 구축
 - 코로나 시대 대비한 실시간 심판 온라인 화상 교육 확대 개최
- 경쟁과 세대 교체
 - 젊고 유망한 심판 발굴 및 육성을 통한 발전적 세대 교체 추진

6. 지속 성장

○ 마케팅 분야

- 중계권 : 자체 제작 기능 토대 마련, 판매구조 다양화 모색
- 스폰서십 : 후원사 파트너십 강화, 마케팅 권리 창출 노력
- 신사업 : '(기존) A매치 위주 수입 + (개선) 신규 자원 창출' 구조로 변모

○ 홍보 및 사회공헌

- 홍보 : SNS 소통 확대 (기존 유튜브 포함 신규 커뮤니케이션 채널 확보)
- 사회공헌 : 파트너사 연계한 CSR 공동활동 전개 등

7. 혁신 축구행정

○ 축구 인프라 확충 : '(가칭)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' 본격 추진

○ 내실 경영 및 축구 행정역량 강화

- 코로나19에 따른 '뉴 노멀' 도래
 - ▶ 상황별 TF 상시화, 애자일 (Agile) 조직 체계하여 기민한 축구행정 추구

○ 제도 개선 및 축구계 인권 제고 노력

- 현장에서 겪는 이종고 (FIFA-정부 지도사자격증 중첩 등) 해소 노력
- 각종 부조리/성비위 접수 사항에 대한 조사조치 및 피해자 지원 계속. 끝.